



KORUS Weekly Review

코러스 위클리 리뷰

I. 언론보도 Press

1. **코로나바이러스가 북한선박들을 멈춤으로써, 제재가 못했던 일을 해내고 있어** **Coronavirus Is Idling**

North Korea's Ships, Achieving What Sanctions Did Not

The New York Times | Christoph Koett | Mar. 26

석탄 및 여타 물품의 불법 수출로 국가적 수익을 가져오는 북한선박들은 코로나바이러스를 피해 중국선박들과 거리를 두고 있는 중임. 런던의 연구기관이 26일 발표한 위성사진 분석과 뉴욕타임즈의 추가적 위성사진 검토에 따르면, 한때 제재대상 물품을 중국으로 또는 중국으로부터 운반하거나 해상에서 불법으로 환적하는 다수의 북한 상선이 출항했던 것으로 나타났지만 지금은 모항에서만 머물고 있음.

코로나바이러스 발병을 막기 위한 북한의 노력 결과로 보이는 이와 같은 변화는 "중국으로 자원을 수송함으로써 유엔안보리 결의안을 회피하려는 대규모 협력적 노력의 종식"을 의미하는 것으로 분석됨. 미국 국무부대변인은 이에 대한 분석이나 시사점에 관해 논평하기를 거부했음.

<https://www.nytimes.com/2020/03/26/video/coronavirus-north-korea.html>

2. **일본, 코로나바이러스 표적 검사를 적용해; 한국, 대규모로 진행해. 미국, 선택의 기로에 서**

Japan uses targeted coronavirus testing; South Korea goes big. The U.S. faces a choice.

Washington Post | Simon Denyer and Carolyn Y. Johnson | Mar. 29

한국과 일본 두나라는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해 대규모검사와 표적검사라는 서로 전혀 다른 방법으로 대응하고 있음. 이는 미국을 포함한 다른 나라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큼. 일본은 의료체계의 한정된 자원을 가장 도움이 필요한 환자에게 집중해 사망자 수를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함. 미국도 검사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검사인프라가 우선적으로 집중되어야 한다고 공식의견을 변경함.

한편 한국정부는 최근 수주간 민간 검사를 신속히 허가하고 병원 밖이나 심지어 승차(drive-thru) 검사를 실시하며 경증 환자를 위한 별도 생활치료센터를 마련하는 등의 방법으로 감염 속도를 늦추는데 성공함. 그러나 일본은 최근 수일간 확진자 수가 매일 200명 이상 증가하고 있음. 일본정부의 전문가패널은 3월26일 감염이 만연해졌다고 표현하면서 도쿄 거리가 이제서야 한산해졌다고 전함.

https://www.washingtonpost.com/2020/03/28/97e81b44-6eb6-11ea-a156-0048b62cdb51_story.html

3. 북한, 코로나바이러스 발생 중에 어느때보다 더 많은 미사일을 발사해 North Korea fires more missiles than ever amid coronavirus outbreak

Reuters | Josh Smith | Mar. 29

북한이 원산 북동쪽 동해상으로 또다시 발사한 “단거리발사체” 2발이 최고 고도 30km(19마일)로 230km(143마일)를 비행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힘. 일본 해상보안청은 북한의 발사체를 곧바로 인지했으며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EEZ) 밖에 떨어졌다고 전함. 북한의 이달 군사훈련은 코로나바이러스 발병을 막기 위해 내려진 국경봉쇄와 검역조치에도 불구하고 실시됨.

북한은 최근 2년간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 진행으로 인해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포함한 군사훈련을 3월까지 하지 않다가 춘계 실험을 재개한 것임. 이 훈련은 북한이 더 강경한 정책으로의 복귀를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는 워싱턴 미국과학자연맹 연구원의 의견이 있음.

<https://www.reuters.com/article/us-northkorea-missiles/north-korea-fires-more-missiles-than-ever-amid-coronavirus-outbreak-idUSKBN21F0Y2>

4. 북한, 폼페이오가 대미 대화에 대한 관심을 상실토록 했다고 말해 North Korea Says Pompeo Made It Lose All Interest in Dialogue With U.S.

The New York Times | Choe Sang-Hun | Mar. 30

북한은 3월30일 외무성 신임 대미협상국장 명의의 담화를 통해, 미국과의 대화에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재차 강조함. 폼페이오장관은 3월25일 “G7을 비롯한 모든 나라는 북한이 비핵화 협상에 복귀하도록 단합해야 한다.”면서, “북한의 불법적

핵·미사일 개발에 대응해 외교·경제적 압력을 행사하는 데 전념해야 한다.”고 말했음.

대미협상국장은 강한 불쾌감을 표하면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 사이의 특별한 개인적 친분에도 불구하고, 북미관계가 왜 계속 꼬여만 가는지를 세상은 잘 모를 것”이라면서, “미국무부 장관 폼페이오가 그 대답을 명백히 했다.”고 비난함. 그는 “국무장관이라는 자가 세계 앞에서 자기 대통령이 좋은 협력관계를 맺자고 하는 나라를 향해 악담을 퍼부으면서 대통령의 의사를 깔아뭉개고 있다.”면서, “미국이 오랜 기간 우리 인민에게 들쭉춘 고통을 그대로 공포와 불안으로 되돌려 줘야 하기 위한 우리의 계획사업들에 더 큰 열의를 갖게 됐다.”고 말함.

<https://www.nytimes.com/2020/03/30/world/asia/north-korea-pompeo-trump.html>

5. 북한, 폼페이오가 회담재개에 대한 관심을 꺾었다고 말해 North Korea says Pompeo undercuts its interest in restarting talks

Reuters | Hyonhee Shin and Heekyong Yang | Mar. 30

북한은 24일 폼페이오 미국무부 장관의 최근 대북 제재 발언을 비판하면서, 교착상태에 빠진 비핵화 회담의 재개에 대한 관심을 훼손했다고 밝힘. 폼페이오는 지난주 G7 외무부 장관들과의 화상회의 후 북한의 협상 복귀를 촉구하고 핵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외교적, 경제적 압력을 가하는 데 모든 국가가 단결해야 한다고 주장했음.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은 협상 책임자인 익명의 외무성 관리 말을 인용, 폼페이오의 무모한 발언이 이후 회담에 대한 관심을 떨어뜨렸고 북한인민에게 가한 고통에 보답하기 위해 “중요한 계획에 열심”이라고 전함. 북한은 트럼프 대통령이 “진실된 원조 계획”을 담은 서한을 보냈지만 곧이어 폼페이오의 “훼방”이 뒤따랐다고 함. 북한은 최근의 갈등에도 불구하고, 트럼프의 서한을 특별하고도 확고한 개인적 관계라고 칭하면서 선전에 이용중임.

<https://uk.reuters.com/article/uk-northkorea-missiles/north-korea-says-pompeo-undercuts-interest-in-restarting-talks-idUKKBN21G0Y9>

6. 휴직 처리된 미군기지 한국인 근로자들, 한국과의 동맹에 타격 U.S. Base Workers Set for Furlough in Blow to South Korea Alliance

Bloomberg | Jon Herskovitz and Jihye Lee | Mar. 31

주한미군부대에서 일하는 한국인 노동자 8,500명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4,000여명이 “4월 1일부터 종료가 통지될 때까지 무급 휴직에 처한다.”는 개별 통보를 지난 25일부터 받음. 무급 휴직이 현실화한다면, 주한미군 주둔 60여년

역사상 초유의 사태임.

트럼프행정부는 올해 한국이 부담할 방위비분담금을 지난해 1조389억원의 5배가 넘는 50억달러(약6조원)로 올리라고 요구함. 지난해 타결돼야 했을 협상이 한미간의 의견차이로 인해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음. 스탠퍼드대 다니엘 스나이더 국제정책학 강사는 "트럼프행정부가 이런 불합리한 요구를 계속 고집한다면 한미 안보동맹의 신뢰성에 심각한 손상을 입힐 것"이라면서, "한미 동맹관계를 종식하고 한국을 중국의 안보 우산 아래 데려다 놓는 현상을 부채질하고 있다."고 비난함.

<https://www.bloomberg.com/news/articles/2020-03-30/u-s-base-workers-set-for-furlough-in-blow-to-korea-alliance>

7. 코로나바이러스: 트럼프, 한국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안다"고 한 뒤 서울 인구를 잘못 짚어

Coronavirus: Trump gets Seoul population wrong after saying he knows South Korea "better than anybody"

Independent | Andrew Naughtie | Mar. 31

트럼프대통령은 언론브리핑에서, 1인당 검사 비율이 한국과 대등한 수준이라고 언급했지만 수도 서울의 인구를 잘못 파악하고 있었음이 밝혀짐. PBS기자는 미국의 코로나바이러스 검사 건수가 대단히 많이 증가했지만 한국에 비해서는 여전히 부족하다고 지적함. 트럼프는 "한국을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다."고 날 선 대답을 하면서 서울 인구가 3,800만명이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1,000만명이 좀 되지 않음. 트럼프는 이어 "나는 1인당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우리는 세계 어느 나라보다 훨씬 더 많은 시험을 치렀다. 우리의 시험도 단연코 세계 어느 나라보다 더 좋다."고 정정함.

<https://www.independent.co.uk/news/world/americas/donald-trump-south-korea-seoul-population-coronavirus-a9437846.html>

II. 연구기관 간행물 Think Tanks

1. 전세계적 유행병 시기에 이끄는 법

How to Lead in a Time of Pandemic

Foreign Affairs | Nicholas Burns | Mar. 25

코로나바이러스의 위기 속에서 이제 미국이 나설 차례이지만, 트럼프대통령은 여태 부적절한 행동만 취하고 있음. 강대국들이 동시다발적으로 해결책을 찾아야

하는 이때 미국의 참여가 필수적이지만, 트럼프의 성향은 결속하기보다 분열시키는 데 가까움.

트럼프행정부는 지금부터라도 국제적 연맹을 결성해 COVID-19의 세계적 전염을 제한해야 함. 정부는 다른 세계적 지도자들과 함께 전염병이 야기하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최소한 세가지의 국제적 노력을 시작해야 함. 첫째, 앞으로 있을 의료 및 경제적 사안에 초점을 맞춘 G20 지도자들의 운영위원회가 필요함. 이들은 원격 회의를 통해 의료 및 경제적 충격의 완화 방법을 논의해야 하는데, 궁극적으로 위기를 끝낼 수 있는 장기 계획에 협력해야 함. 가장 중요한 것은 불화 대신 전염병과 함께 싸우고 궁극적인 구제를 위한 단합된 결의의 메시지를 전해야 함.

트럼프와 지도자들은 G20국 및 여타 국가들의 재무부장과 중앙은행총재로 구성된 차 하위 층에 대한 감독도 해야 함. 거의 한세기 만에 가장 심각한 경제위기에 직면했을 때 그들의 초점은 세계적 경기침체의 심각성을 제한하기 위해 재정 및 통화 정책을 더욱 긴밀히 조율하는 것이어야 함. 당장 해결해야 할 문제는 더욱 성공적인 의료 대응에 필수적인 의약품에 대한 관세장벽을 낮추는 일임. 최소한 일시적으로라도 중요한 인도적 지원을 방해하는 모든 제재조치를 해제해야 함.

마지막으로 트럼프행정부는 상대국들과 빈번한 소통을 확립할 필요가 있음. 양대 강국으로서 미국과 중국은 위기의 최악 측면을 완화하고 공공지도력을 제공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경주해야 함. 오히려 미국과 중국 간의 불신과 적개심이 더욱 심해져 전세계적 유행병의 궁극적 책임소재에 대한 지속적인 설전을 벌이고 있음. 미국과 중국은 자국민과 타국 국민 모두를 위해 서로에 대한 비난을 중단하고 해결책 마련을 위한 협력을 시작해야 함.

이 정도 규모의 세계적 위기는 최종적이고 잠재적으로 치명적인 위험을 수반함. 각국이 서로 등을 돌려 부족한 자원을 가지고 겨루고 책임감 있게 소통하지 못한다면 전쟁과 갈등이 불가피함. 전세계적 유행병의 위기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집중력 있고 단호하며 효과적인 지도력과 트럼프를 비롯한 세계지도자들의 진정한 협력이 필요함. 그들은 세계가 이 실존의 문제를 헤쳐나갈 수 있을지를 좌우할 것임.

<https://www.foreignaffairs.com/articles/2020-03-25/how-lead-time-pandemic>

2.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에 대한 미국과 한국의 상이한 접근 벗기기 Unmasking

Differing U.S. and South Korean Approaches to COVID-19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 Scott A. Snyder | Mar. 27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가 전세계로 만연하면서 4월 총선과 11월 대선을 앞둔 한미양국에서 마스크 및 보건의료장비 수급문제는 정부에 정치적 부담요인으로 까지 작용하고 있으나, 마스크착용에서 양국간에 차이가 있음. 한국에서는 마스크착용이 사회적거리두기의 핵심요소로 여겨지지만, 미국에서 마스크는 “환자의 상징물”같이 인식됨. 미국내 전문가들은 “마스크가 착용자를 보호하지 않는다.”며, 아플 때만 착용하라고 권고해왔으며, 심지어 집에 머물면서 마스크나 음식, 화장지 등을 비축하지 않는 것이 애국적인 의무로 여겨짐.

또한 트럼프대통령은 취임 후 최대 위기를 맞아 전시(戰時)라는 표현까지 동원했으나, 인공호흡기 및 의료기기 등의 부족현상이 심각하고 각주에서 수요가 몰리면서 가격폭등 현상까지 일어나 불만이 높아지고 있음. “메인스트리트”와 “월가”에 위기가 동시에 덮치면서 트럼프행정부의 경제성과를 갉아먹고 있음. 반면 문대통령에게는 코로나바이러스가 여러 취약성을 숨기는 의외의 마스크 역할을 하고 있어 궁극적으로 정치적 혜택을 볼 가능성도 있다고 봄.

<https://www.cfr.org/blog/unmasking-differing-us-and-south-korean-approaches-covid-19>

3. 한국, 코로나바이러스 대응에 관해 좋고 나쁜 교훈을 제공해 South Korea Provides Lessons, Good and Bad, on Coronavirus Response

The Heritage Foundation | Bruce Klingner | Mar. 28

한국은 신속하고 광범위한 검사와 첨단기술을 이용한 모니터링 및 알리를 결합한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증(COVID-19) 검사프로그램이 가장 명확한 기준이 되었지만, 시민의 자유에 대한 잠재적 비용은 다른 나라들이 모방하지 않으려 할 수도 있음. 한국의 COVID-19관리는 확진자 증가율을 줄여 “평평한 곡선”을 달성함. 한국은 다른 나라들처럼 엄격한 사회적 조치를 부과하여 여행금지, 영업장 폐쇄 등을 선언하지 않고도 이를 달성했음. 한국은 최초 바이러스 발견 직후 “신뢰 전략”을 시행했음. 투명성, 강력한 선별 및 격리, 선별적이지만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검사, 엄격한 통제 및 치료 등이 수반됨.

한국정부의 접근방식의 특징은 광범위한 시험을 신속히 시행하고, 국가가 강력한 방향을 제공하며, 정부규제를 줄여 기업과의 혁신적 상호작용을 진행하고, 광범위한 개인모니터링을 실행하는 것임. 공무원들은 국내 첫 사례가 진단된 지 1주일만에 20개 의료회사대표들과 만나 대량생산을 위한 테스트키트를 즉시 개발할 것을 요청했음. 곧이어 질병관리본부가 기업들의 진단 시험을 승인했고 2주내로 하루 10만개의 키트를 생산하게 됨. 한국은 미국처럼 심각한 질환이나 피해지역내나 확진자와 접촉한 이력이 있는 사람들에게만 검사를 제한하기보다 무증상자들에

대한 검사도 시행하고 경증상자들도 격리 치료했으며, 이를 통해 확산을 억제하고 병원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함.

하지만 한국의 효과적 검사프로그램은 조지 오웰의 소설 속에 나오는 것같은 첨단기술을 통한 감시가 수반됨. 2015년 메르스사태 이후 한국은 더욱 적극적인 밀집 추적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새로운 절차를 개발하고 법령을 개정했음. 정부는 시민들의 신용카드 기록, 휴대전화 GPS자료, CCTV정보 등을 이용할 수 있게 됨. 누군가 확진자가 되면 정부는 그의 움직임을 추적해 경보를 내리고 통지하며, 필요하면 그와 접촉했을 지 모를 사람들을 격리시킴. 격리된 사람들은 당국이 경고하는 감시 앱을 다운로드 받아야 함.

이와 같은 노력은 미국정부의 완만한 속도 및 급하지 않은 경고와 대조적 임. 미국에서는 COVID-19 검사가 느리고 제한적이기 때문에 정보가 잘 파악되지 않음. 미국정부는 또한 한국과 달리 민간부문이 검사를 돕는 것을 제한하는 번거로운 규칙들이 있음. 결과적으로 한국의 개인정보 접근방식은 전염병 확산방지를 위해 효과적인 대책이었지만 미국인들의 사생활 기준에서는 "절대 반대"일 수도 있음.

<https://www.heritage.org/asia/commentary/south-korea-provides-lessons-good-and-bad-coronavirus-response>

사단법인 한미협회

03150 서울 종로구 삼봉로 81 두산위브파빌리온 809호

81 Sambong-no, Suite 809, Doosan We've Pavilion, Jongno-gu, Seoul 03150, Korea
Tel: +82-2-730-1181/2, Fax: +82-2-730-1180, Email: koramas@naver.com